

청소년의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 연구 - 서울·경기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

최 명 선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 영 희²⁾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이 지 항³⁾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중·고등학생 총 597명을 대상으로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Osgood 등(1957)의 의미 분석법(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에 근거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는 우선 능력 차원과 평가 차원은 거의 유사한 순서를 지니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과 같은 지칭어는 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는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청소년이 경기 지역 청소년에 비해 가족 구성원을 더욱 친밀하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아버지, 언니는 능력 차원에서, 어머니와 형은 활동 차원에서, 남동생과 누나는 각각 능력과 평가, 평가와 활동 차원에서 학교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주요어 : 가족 지칭어, 이미지, 의미분석법

1)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

2) 교신저자 :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yhkim@daejin.ac.kr

3)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

I.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가정은 인간에게 최초의 환경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정은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급격한 변동을 거치면서 그 구조와 기능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확대가족은 핵가족으로 변화하였으며, 편부모가족, 독신가족, 노인 단독 세대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동성애 가족, 별거 가족 등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 사회에서는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와 지지를 강화해가며 생활하던 것이, 현대의 도시 사회에서는 익명성과 스트레스의 증대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는 피상적으로 변해가며, 상호간의 유대 의식 역시 약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가정이 가지는 친밀감, 소속감, 정서적 안정 등의 기능이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은 학업, 입시 및 진로,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등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를 통한 유대와 결속을 다지는 일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자녀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이전 시기와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양상이 달라진다. 즉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사회적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짐에 따라 기존에는 가족과 함께 나누던 시

간과 감정들을 친구나 또래 집단과 나누려고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느끼거나,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급속한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명백한 위계와 역할이 존재하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청소년 자녀가 중년의 부모에게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사용방법을 가르쳐주는 권위의 역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변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며, 가족이 청소년의 발달과 삶에서 일차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한 때는 상술한 현대 가정의 변모된 모습이나 청소년기의 변화된 가족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가정이나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현대 사회가 가지는 하나의 특성으로 인식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작업은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특성을 다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가족 구성원이 가지는 실제적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가족 형태인 핵가족 체계에서 사용되는 지칭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은 어떠한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칭어란 제 3자에게 자신의 가족원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언어로서, 가족원을 직접적으로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칭어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칭어의 사회인지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가족 지칭어에 대해 지니는 의미는 실제로 그가 가족 안에서 가족원들과 상호작용에 얼마나 노출되고, 그 관계를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영희, 2001)고 보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족임이 분명하지만, 이 때의 가족이란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지각되는 현상으로서의 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가족 지칭어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결국 청소년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시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칭어에는 단순히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칭하는 대상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대가 포함되어 있기(김진우, 1985 ; 박창원, 1999; 이석규, 김선희, 1992) 때문이다. 이를테면 “오빠”와 “형”은 둘 다 똑같이 손위의 남자 동기(同氣)를 의미하지만, “오빠”와 “형”이 나타내는 뉘앙스와 사회적 가치는, 그 지칭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지칭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족관계 특성을 탐색하는 것은, 현대의 가족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파악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지칭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주로 성인들의 친족 지칭체계의 기술 및 분석에 치중한 연구(강신향, 1967; 김기봉, 1985; 왕한석, 1988; 이광규, 1971; 이승녕, 1968; 이윤표, 1986; 최명옥, 1982a, 1982b; 최재석, 1982)이거나, 아동의 친족관계에 대한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이순형, 1984, 1986; Chamber & Tavuchis, 1974; Danger, 1957; Edwards, 1984;

Haviland & Crark, 1973; Piaget, 1928)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족 지칭어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관한 연구(김영희, 2001)도 진행된 바 있으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지칭어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의 가족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Osgood, Suci, 그리고 Tannenbaum (1957)이 발전시킨 의미분석법을 사용하여 특정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가족 지칭어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서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의미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의미분석법은 Osgood 등이 발전시킨 심리측정의 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사물, 인간, 사상, 사건 등에 관한 개념의 의미를 의미공간 속에서 측정하려는 것이다. 즉 한 개념의 의미를 양극적으로 대비되는 형용사군에 의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방향, 거리, 강도를 갖는 의미공간으로 포치시킬 수 있다는 측정이론이 밑받침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서의 의미분석법은 그 출발의 역사에 비해서 급속한 발전을 본 방법의 하나이다. 초기에는 주로 정치적 문제에 관련된 개념이 의미변별의 대상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의미분석법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인류학, 학습이론, 태도 및 가치관, 언어심리학,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광웅, 1977).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에게 지각되는 가족 관계 특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사회의 변모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청소년의 가족관계 기능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된 형태의 가족 관계를 형성,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1. 청소년은 가족 지칭어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가?
2. 성에 따라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는 차이가 있는가?
3. 거주지역(서울·경기)에 따라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는 차이가 있는가?
4. 연령(중·고등학생)에 따라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P군 S리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들이다. 총 65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597명(92.75%)의 질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집된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중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16명(52.9%), 서울지역이 281명(47.1%) 이었다. 성별 분포는 남자 아동이 275명(47.1%) 이었고, 여자 아동이 309명(52.9%) 이었다. 청소년의 연령분포는 중학생이 266명(44.6%), 고등학생이 330명(55.4%)이다. 부의 연령은 41세-45세까지가 277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6세-50세로 178명(30.6%) 이었다. 그리고 51세-55세까지가 77명(13.2%)으로 높은 분포를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분포

항목	빈도(%)	
지역	경기	316(52.9)
	서울	281(47.1)
성별	남	275(47.1)
	여	309(52.9)
연령	중	266(44.6)
	고	330(55.4)
부의 연령	30세이하	1(0.2)
	31-35세	1(0.2)
	36-40세	41(7.0)
	41-45세	277(47.6)
	46-50세	178(30.6)
	51-55세	77(13.2)
	56세이상	7(1.2)
	30세이하	1(0.2)
	31-35세	11(1.9)
	36-40세	154(26.2)
모의 연령	41-45세	314(53.4)
	46-50세	91(15.5)
	51-55세	15(2.6)
	56세이상	2(0.3)
	중학교 졸업이하	109(18.8)
	고등학교 졸업	295(50.9)
부의 학력	전문대학 졸업	15(2.6)
	대학교 졸업	129(22.2)
	대학원 졸 이상	32(5.5)
	중학교 졸업이하	150(25.9)
모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358(61.7)
	전문대학 졸업	9(1.6)
	대학교 졸업	60(10.3)
	대학원 졸 이상	3(0.5)
	중학교 졸업이하	150(25.9)

표 1. 계 속

항목	빈도(%)
부의 직업	농어업 28(5.2)
	단순노무직 52(9.6)
	기능관련/기계조작 107(19.9)
	판매직/서비스직 31(5.8)
	자영업자 123(22.8)
	사무/기술직 146(27.1)
	경영관리직 23(4.3)
	전문직 29(5.4)
모 직업	농어업 7(2.2)
	단순노무직 41(13.1)
	기능관련/기계조작 22(7.0)
	판매직/서비스직 80(25.6)
	자영업자 54(17.3)
	사무/기술직 56(17.9)
	경영관리직 2(0.6)
	전문직 10(3.2)
	주부 41(13.1)

보여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부의 연령은 40대 초반부터 50대 초까지에 거의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의 연령은 41세-45세로 314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6세-40세까지가 154명(26.2%)이었다. 그리고 46세-50세까지가 81명(15.5%)으로 높은 분포를 보여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모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에 거의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95명(50.9%), 대학교 졸업이 129명(22.2%), 중학교 졸업이하가 109명(18.8%)으로 주를 이루었고, 모의 학력도 고등학교 졸업이 358명(61.7%), 중학교 졸업이하가 150

명(25.9%) 대학교 졸업이 60명(10.3%)이었다.

부의 직업으로는 사무/기술직이 146명(27.1%), 자영업자가 123명(22.8%), 기능관련/기계조작이 107명(19.9%)가 주를 이루었다. 모의 직업으로는 판매직/서비스직이 80명(25.6%)이고, 사무/기술직이 56명(17.9%), 자영업자가 54명(17.3%)로 주를 이루었다.

측정도구

의미분석 대상 용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가족 지칭어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이는 핵가족 내에서 포함하고 있는 가족 지칭어로 부모님과 아버지, 어머니, 언니와 오빠, 그리고 형과 누나, 남동생과 여동생이다.

의미분석 척도

이 도구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 지칭어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를 능력(potency), 평가(evaluation), 활동(activity)의 세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의 이론적 배경은 Osgood 등(1957)의 의미분석법(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에 근거하였으며, 구체적인 형용사 척도는 장동환(1964)의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

표 2. 의미분석법에 사용한 가족 지칭어

가족 지칭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	누나
형	여동생
남동생	

표 3. 본조사에 사용된 의미분석 척도

능력 차원	적극적이다 - 소극적이다
	똑똑하다 - 어리석다
	유능하다 - 무능하다
평가 차원	착하다 - 악하다
	옳다 - 그르다
	좋다 - 나쁘다
활동 차원	빠르다 - 느리다
	날카롭다 - 무디다
	활발하다 - 둔하다

구’에서 밝혀진 바에 근거하여 능력, 평가, 활동성의 각 요인별로 부하량이 .30이상인 형용사 중에서 가족 지칭어의 이미지 측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9쌍의 형용사를 선택하여 작성하였다. 척도를 구성하는 9쌍의 형용사는 그 양극적 의미 사이를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각 세 가지 차원의 형용사 척도는 표 3과 같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능력과 평가, 활동성 차원에 대해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절차

예비조사

본조사에 앞서 2000년 3-4월 동안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20명씩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질문의 이해수준 및 문항에 대한 반응과 시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조사

본조사는 2000년 5월-7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8월과 9월에 걸쳐 자료분석이 실시되었다.

자료분석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기초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2) 가족 지칭어의 각 대상개념에 대한 이미지 측정결과를 개념별, 측정차원별(능력, 평가, 활동)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평균치에 의거하여 차원별로 각 대상 개념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3) 성별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4) 지역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5) 연령(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아래에 제시된 결과는 청소년의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 분석과 성과 지역과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의미분석법에 의한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 분석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지칭어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과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능력 차원에서 청소년이 높게 지각하는 가족 지칭어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 누나, 언니, 여동생, 남동생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 차원에서 청소년이 높게 지각하는 가족 지칭어는 어머니, 부모님, 아버지 오

표 4. 의미분석법에 의한 가족 지칭어의 이미지 측정

지칭어	평정 사례수	능력차원 <i>M(SD)</i>	평가차원 <i>M(SD)</i>	활동성차원 <i>M(SD)</i>
부모님	587	1.76(0.75)①	1.62(0.79)②	2.25(0.81)④
아버지	588	1.80(0.83)②	1.76(0.91)③	2.23(0.90)③
어머니	589	1.84(0.78)③	1.50(0.70)①	2.34(0.85)⑦
오빠	583	1.90(0.81)④	1.83(0.83)④	2.12(0.78)②
형	583	1.93(0.84)⑤	2.16(0.93)⑥	2.05(0.84)①
누나	586	1.95(0.85)⑥	1.83(0.88)④	2.29(0.85)⑤
언니	583	2.01(0.76)⑦	2.17(0.82)⑦	2.32(0.77)⑥
여동생	583	2.55(0.91)⑧	2.18(0.88)⑧	2.44(0.83)⑨
남동생	585	2.60(0.92)⑨	2.23(0.93)⑨	2.39(0.88)⑧

빠, 누나, 형, 언니, 여동생, 남동생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활동성 차원에서 청소년이 높게 지각하는 가족 지칭어는 형, 오빠, 아버지, 부모님, 누나, 언니,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순이었다.

넷째, 청소년의 가족지칭어에 대한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능력과 평가차원에서보다 활동성 차원에서 낮은 지각을 보였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능력 차원과 평가차원은 유사한 양상을 보인 반면 활동차원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능력과 평가차원에서 높은 지각을 보였고, 이에 반해 어머니의 경우 활동차원에서 두드러지게 낮은 지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형과 오빠는 능력과 평가차원보다 활동차원에서 높은 지각을 나타내 청소년들에게 있어 형과 오빠의 이미지는 활동적인 이미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언니와 여동생과 남동생의 경우 세 차원 모두에서 낮은 지각을 보여 청소년들에게 있어 언니와 여동생, 남동생의 이미지는

다른 가족의 이미지에 비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님, 아버지는 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이미지가 형성되었으며, 어머니는 능력과 평가 차원에서는 높은 이미지가 형성된 반면 활동 차원에서는 낮은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오빠나 형과 같은 순위 남자 동기의 경우, 능력과 평가 차원에서는 중간 정도의 이미지가 형성된 반면 활동 차원에서는 높은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누나나 언니와 같은 순위 여자 동기의 경우, 세 차원 모두에서 중간 혹은 중간 이하의 이미지가 형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언니보다 누나의 이미지가 다소 높게 형성되었다. 끝으로 여동생, 남동생과 같은 손아래 동기의 경우 세 차원 모두에서 가장 낮은 이미지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성에 따른 가족 지칭어의 이미지 차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님’과 ‘아버

지’, ‘형’, ‘누나’의 이미지는 세차원 모두에서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모님’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5. 성에 따른 가족 지칭어의 이미지 차이

지칭어	성별	능력차원 <i>M(SD)</i>	평가차원 <i>M(SD)</i>	활동성차원 <i>M(SD)</i>
부모님	남	1.79(0.76)	1.62(0.78)	2.26(0.84)
	여	1.73(0.74)	1.61(0.80)	2.24(0.75)
	<i>t</i>	0.94	0.18	0.40
아버지	남	1.83(0.83)	1.80(0.90)	1.80(0.90)
	여	1.77(0.83)	1.71(0.92)	1.71(0.92)
	<i>t</i>	0.82	0.82	1.19
어머니	남	1.88(0.79)	1.53(0.71)	2.43(0.87)
	여	1.79(0.76)	1.48(0.70)	2.57(0.80)
	<i>t</i>	1.37	0.82	2.51*
형	남	1.88(0.86)	2.16(1.02)	2.00(0.90)
	여	1.98(0.83)	2.16(0.84)	2.10(0.78)
	<i>t</i>	-1.43	-0.07	-1.30
누나	남	1.93(0.86)	1.83(0.93)	2.34(0.89)
	여	1.95(0.82)	1.83(0.82)	2.22(0.78)
	<i>t</i>	-0.32	0.02	1.58
오빠	남	2.00(0.85)	1.92(0.87)	2.19(0.85)
	여	1.81(0.76)	1.75(0.79)	2.06(0.71)
	<i>t</i>	2.76**	2.53*	1.96*
언니	남	2.16(0.95)	2.24(0.90)	2.40(0.77)
	여	1.87(0.95)	2.10(0.75)	2.25(0.75)
	<i>t</i>	4.70***	1.99*	2.30*
남동생	남	2.71(0.95)	2.27(0.99)	2.53(0.90)
	여	2.51(0.88)	2.18(0.87)	2.25(0.84)
	<i>t</i>	2.57**	1.11	3.80***
여동생	남	2.57(0.95)	2.11(0.90)	2.57(0.85)
	여	2.54(0.88)	2.24(0.87)	2.33(0.81)
	<i>t</i>	0.42	-1.65	3.33***

‘어머니’에 대해서는 활동성차원($t=2.5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어머니’를 더 활동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오빠’에 대해서는 성에 따라 능력차원($t=2.76, p<.01$)과 평가차원($t=2.53, p<.01$), 활동차원($t=1.96, p<.05$)의 세 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오빠’라는 대상에 대해 더 능력있고 활동적이며,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니’에 대해서도 성에 따라 능력차원($t=4.70, p<.001$)과 평가차원($t=1.99, p<.05$), 활동차원($t=2.30, p<.05$)의 세 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언니’도 ‘오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언니를 더 능력있고 활동적이며, 더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동생’에 대한 이미지는 성에 따라 능력차원($t=2.57, p<.01$)과 활동차원($t=3.8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남동생’을 더 능력있고, 더 활동적인 대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동생’에 대해서는 능력차원과 평가차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활동차원($t=3.33,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여동생’이라는 대상을 더 활동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칭어를 부모, 동기로 나누어 요약하면, 우선 부모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만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모님’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위의 연구문제 1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는 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동기와 관련된 지칭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상위 동기의 경우,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지칭어는 모두 ‘오빠’, ‘언니’와 같이 여자 청소년이 사용하는 지칭어였다. 이는 남, 여 청소년이 가지는 동기와의 관계 양상이 다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지역에 따른 가족 지칭어의 이미지 차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는 지역에 따라 능력차원($t=1.96, p<.05$), 평가차원($t=3.7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서울지역의 청소년이 경기도 청소년보다 ‘부모님’에 대해 더 능력있게 지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지역에 따라 평가차원($t=3.28, p<.01$), 활동성차원($t=1.96,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지역의 청소년이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더 활동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역시 지역에 따라 능력차원($t=2.94, p<.01$), 평가차원($t=1.96,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서울지역의 청소년이 경기도 청소년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능력있고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에 대한 이미지는 평가차원($t=1.96$,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지역의 청소년이 경기지역의 청소년보다 ‘형’이라는 대상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6. 지역에 따른 가족 지칭어의 이미지 차이

지칭어	지역	능력차원 $M(SD)$	평가차원 $M(SD)$	활동성차원 $M(SD)$
부모님	경기	1.83(0.75)	1.74(0.83)	2.29(0.80)
	서울	1.70(0.75)	1.49(0.73)	2.20(0.81)
	t	1.96*	3.70***	1.33
아버지	경기	1.83(0.82)	1.87(0.94)	2.29(0.90)
	서울	1.76(0.84)	1.63(0.86)	2.16(0.89)
	t	0.94	3.28**	1.96*
어머니	경기	1.93(0.82)	1.57(0.69)	2.36(0.86)
	서울	1.74(0.71)	1.44(0.71)	2.32(0.83)
	t	2.94**	1.96*	0.58
형	경기	1.98(0.90)	2.24(0.96)	2.10(0.87)
	서울	1.88(0.77)	2.09(0.88)	2.00(0.80)
	t	1.47	1.96*	1.50
누나	경기	1.97(0.86)	1.85(0.86)	2.31(0.91)
	서울	1.91(0.86)	1.81(0.90)	2.26(0.77)
	t	0.86	0.53	0.61
오빠	경기	1.97(0.83)	1.90(0.86)	2.15(0.81)
	서울	1.82(0.78)	1.74(0.79)	2.08(0.74)
	t	2.12*	2.34*	1.15
언니	경기	2.03(0.77)	2.20(0.84)	2.30(0.77)
	서울	1.98(0.76)	2.13(0.81)	2.34(0.76)
	t	0.82	0.98	-0.65
남동생	경기	2.64(0.90)	2.35(0.94)	2.40(0.90)
	서울	2.57(0.94)	2.09(0.90)	2.37(0.86)
	t	0.95	3.37***	0.41
여동생	경기	2.58(0.91)	2.26(0.90)	2.43(0.85)
	서울	2.51(0.91)	2.08(0.85)	2.45(0.81)
	t	0.89	2.40*	-0.20

한편 ‘누나’에 대한 이미지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오빠’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능력차원($t=2.12, p<.05$)과 활동차원($t=2.34,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경기지역 청소년들보다 ‘오빠’라는 대상에 대해 더 능력있게 지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언니’에 대한 이미지는 누나에 대한 차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동생’과 ‘여동생’에 대한 지역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는 두 대상 모두 평가차원($t=3.37, p<.001; t=2.40,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동생’과 ‘여동생’에 대해서 서울지역의 청소년이 경기지역의 청소년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지역에 따른 가족 지칭어에 대한 청소년의 이미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순위 여자형제인 ‘누나’와 ‘언니’를 제외한 모든 지칭어에 있어서 한 두 차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 이러한 결과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이 경기지역의 청소년보다 가족지칭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서울 지역 청소년들이 과도한 경쟁 및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욱 과중하게 받으면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가족과의 관계 등에 더욱 가치를 부여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령에 따른 가족 지칭어의 이미지 차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청소년집단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연령단계로 나누어 이들 집단 간의 이미지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에 따라 능력차원($t=-2.47,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님’에 대해 능력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아버지’는 능력차원($t=-1.96, p<.05$), 어머니는 활동차원($t=1.96, p<.05$)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더 능력 있다고 지각하고 있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더 활동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형’에 대한 이미지는 활동성차원($t=-2.05,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형’에 대해 더 활동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누나’에 대한 이미지는 평가차원($t=1.96, p<.05$)과 활동성차원($t=-1.96,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누나’에 대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활동성차원에서는 중학생이 더 긍정적인 지각을 보였다.

다음으로 ‘오빠’에 대한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언니’에 대한 이미지는 능력차원($t=2.05,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언니’를 더 능력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있었다.

‘남동생’에 대해서는 능력차원($t=-2.71, p<.01$)과 평가차원($t=-2.02,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두 차원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었다.

‘여동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연령에 따른 가족 지칭어의 이미지 차이

지칭어	연령	능력차원 <i>M(SD)</i>	평가차원 <i>M(SD)</i>	활동성차원 <i>M(SD)</i>
부모님	중	1.67(0.76)	1.58(0.83)	2.25(0.84)
	고	1.83(0.74)	1.65(0.76)	2.25(0.78)
	<i>t</i>	-2.47*	-0.99	-0.03
아버지	중	1.72(0.82)	1.73(0.94)	2.21(0.90)
	고	1.86(0.83)	1.78(0.89)	2.24(0.90)
	<i>t</i>	-1.96*	-0.62	-0.36
어머니	중	1.83(0.78)	1.47(0.72)	2.43(0.88)
	고	1.85(0.78)	1.53(0.69)	2.29(0.82)
	<i>t</i>	-0.28	-0.93	1.96*
형	중	1.93(0.85)	2.15(0.95)	1.97(0.78)
	고	1.94(0.84)	2.18(0.91)	2.12(0.87)
	<i>t</i>	-0.15	-0.38	-2.05*
누나	중	1.89(0.87)	1.92(0.95)	2.21(0.87)
	고	1.99(0.84)	1.79(0.82)	2.35(0.83)
	<i>t</i>	-1.33	1.96*	-1.96*
오빠	중	1.88(0.83)	1.80(0.82)	2.09(0.72)
	고	1.92(0.79)	1.85(0.85)	2.14(0.82)
	<i>t</i>	-0.59	-0.79	-0.74
언니	중	1.94(0.80)	2.17(0.93)	2.34(0.83)
	고	2.07(0.74)	2.16(0.73)	2.30(0.71)
	<i>t</i>	-2.05*	0.18	0.66
남동생	중	2.49(0.93)	2.14(0.97)	2.34(0.91)
	고	2.70(0.90)	2.30(0.90)	2.42(0.85)
	<i>t</i>	-2.71**	-2.02*	-1.11
여동생	중	2.59(0.99)	2.14(0.87)	2.43(0.85)
	고	2.51(0.84)	2.21(0.89)	2.45(0.81)
	<i>t</i>	1.01	-0.91	-0.24

부모 세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의 연구문제 1, 2에서 살펴본 바와 유사하게, ‘부모님’,

‘아버지’가 비슷한 양상을 드러냈으며, ‘어머니’만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중

학생들은 동성의 순위 동기에 대해 형성한 이미지가 더욱 긍정적이었던 반면, 고등학생들은 ‘어머니’나 ‘누나’와 같이 연상의 여성 가족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누나’에 대한 활동성차원에서는 중학생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합 양상을 나타내었다.

IV. 결론 및 제언

지각심리학의 이론에 의하면, 각 개인이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에 의하여 그가 취하는 행동이 좌우된다고 한다. 즉 인간의 행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지각이라는 것이다. 이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각심리학의 관점을 적용한다면, 가족 자체보다도 가족에 대한 지각이 개인의 발달이나 적응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가지는 가족에 대한 지각을 탐색하기 위하여 가족 지칭어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능력 차원과 평가 차원은 거의 유사한 순서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능력 차원에서 비교적 높게 지각되고 있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용어는 평가 차원에서도 비교적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력 차원에서 중간 수준으로 지

각되고 있는 오빠, 형, 누나는 평가 차원에서도 중간 수준으로 지각되고 있었다. 또한 능력 차원에서 비교적 낮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난 언니, 여동생, 남동생은 평가 차원에서도 비교적 낮게 지각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현대의 청소년들이 가족 구성원을 평가함에 있어서 구성원 각자의 능력 요소를 상당 수준 고려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이며 한국의 청소년은 학업이나 입시 경쟁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 청소년 개개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가진 특성이 아닌, 그들의 능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은 자신들이 가족 구성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역시 가족 구성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가치를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가족의 건강성을 더욱 높게 지각했음을 보고(권대희, 2003; 윤세은, 2000)한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비교적 사회, 경제적 능력을 가진 가족 구성원은 그만큼 사회적 상황에서의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 구성원과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활동 차원에 있어서는 상술한 능력 차원, 평가 차원과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냈는데, 비교적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난 용어는 형, 오빠, 아버지, 중간 수준으로 지각되었던 용어는 부모님, 누나, 언니,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지각되었던 용어는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으로, 남성 지칭 용어가 보다 활동적으로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사항은 어머니의 활동성을 형이나 오빠 보다 낮게

지각했다는 점인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 연구(김영희,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이 가족 구성원의 활동성을 지각함에 있어서 가족 내의 역할보다는, 각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가족 이외의 확대된 사회적 관계 맥락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연령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 이를테면 가정에서의 활동적 역할이나 기능 수행 등과는 관계없이, 청년기가 중년기에 비해서,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활동적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의 영향을 은연중에 받음으로써 나타나 는 지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우(1985)는 사회언어 학적인 관점에서 남녀가 사회에서 부담하는 기능의 차이를 언어가 반영한다고 보았다. 즉 여성인 어머니의 활동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실제 어머니의 활동성과는 별개로, 청소년의 지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가족 지칭어에 대한 성별 이미지 차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부모님, 아버지, 형, 누나와 같은 용어는 세 차원 모두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어머니,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과 같은 용어는 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어머니의 경우, 활동 차원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에 비하여 남자 청소년이 어머니를 더욱 활동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활동, 역할, 기능 등에 대해서,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여자 청소년보다 이를 대행하기가 어려운 남자 청소년이 더욱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기에 접어

든 딸의 경우,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활동 내용을 분담하거나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아들의 경우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때문에 어머니의 활동 영역에 잠시라도 공백이 생기는 경우, 여자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대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남자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크게 불편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활동 차원에 대한 지각의 성차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 더욱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보고(청소년 보호위원회, 2000)가 있었다. 즉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더욱 의존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을 더욱 크게 받으므로, 어머니의 활동성을 더욱 높게 지각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빠와 언니의 경우는 세 차원 모두에서, 남동생은 능력과 활동 차원에서, 여동생은 활동 차원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이들 모두 여자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점이다. 남동생과 여동생은 남, 여 청소년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오빠와 언니의 경우는 여자 청소년만이 사용 가능한 용어이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네 가지 용어 모두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비교적 형제나 자매에 대해 더욱 친밀감을 느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나 언니, 누나, 여동생에 대해서는 여자 아들이, 형, 남동생에

대해서는 남자 아동이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음을 보고한 김영희(2001)의 아동의 가족 지칭어 이미지 분석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아동기는 성역할에 대한 도식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동성의 부모나 동기에게 더욱 친밀감은 형성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Bem, 1981) 반면,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나 동기들과의 관계 또한 성숙하기 때문에 아동기와는 다른 지각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더욱이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에 매우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보다 넓은 또래관계를 형성하기(서동인, 1992) 때문에 동기에 대한 친밀감이나 유대 등을 강하게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보아, 남자 청소년은 수직적 위치에 있는 대상에 대해, 여자 청소년은 수평적 위치에 있는 대상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지각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 지칭어에 대한 지역별 이미지 차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누나와 언니를 제외한 모든 지칭어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서울 지역 청소년이 경기 지역 청소년에 비하여 더욱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 어머니, 오빠의 경우는 능력과 평가 차원에서, 아버지의 경우는 평가와 활동 차원에서, 형, 남동생, 여동생은 평가 차원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다. 차이가 발생한 모든 지칭어에 있어서 서울 지역 청소년이 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 지역 청소년이 경기 지역 청소년에 비해

가족 구성원을 더욱 친밀하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서울 지역 청소년이 타 지역 청소년에 비하여 더욱 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내신 등급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타 지역에 비하여 심한 편이며, 이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교우간의 경쟁심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학교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서울 지역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가족과의 관계 등을 더욱 필요로 하거나, 더욱 가치를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한 지각 역시 타 지역 청소년에 비하여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가족 지칭어에 대한 학교급별 이미지 차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오빠와 여동생을 제외한 모든 지칭어에 있어서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님, 아버지, 언니는 능력 차원에서, 어머니와 형은 활동 차원에서, 남동생과 누나는 각각 능력과 평가, 평가와 활동 차원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아버지, 형, 누나, 언니, 남동생의 경우는 중학생이, 어머니와 누나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더욱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주로 연상의 여성 가족원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연상의 여성이 가지는 지지적이며 따뜻한 이미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고등학교에 진학 후 입시와 진로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무조건적인 지지나 수용과 같은 모성 이미지를 가진 대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에 대하여 서울지역 아동들보다 경기지역 아동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음을 보고한 김영희(2001)의 아동의 가족 지칭어 이미지 분석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서울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열이나,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의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서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더욱 심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지역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표현적 기능이 더욱 필요로 하게 되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 지칭어에 대한 지각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청소년 기본법을 고려하면, 24세의 연령 범위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많은 수가 대학교 및 대학원 등에 진학하고 있으며, 결혼 연령이 점점 늦추어지는 등 원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연령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의 가족 지칭어 지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후기의 가족 관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에 속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한가지는 다양성이다. 이제는 편부모 가족이 더 이상 결손가족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

태의 한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입양 가족, 독신 가족, 동성애 가족 등 매우 폭넓은 가족 구조를 지니가고 있다. 이러한 가족 각각에 있어서 각각의 가족 지칭어가 가지는 의미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가족 구조가 가지는 기능적 특성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는 자녀의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와 더불어 부모의 입장에서 가지는 가족 지칭어 이미지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족 관계란 어느 한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이전 시기와는 달리 자녀가 가지는 영향력은 더욱 강해진다. 즉 상호작용의 역동성이 더욱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가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칭어 이미지를 함께 탐색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역동적인 관계 및 기능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신향 (1967). 현대국어의 가족명칭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 75-115.
- 권대희 (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1977). 의미변별법에 의한 여대생의 직업관 분석. 숙대논문집, 503-518
- 김기봉 (1985). 친족용어체계에 관한 성분분석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 (2001). 아동의 가족 지칭어에 대한 이미지 연구 -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8(1) 1-19.
- 김진우 (1985). *언어 그 이론과 응용*. 서울: 탑출판사.
- 박창원 (1999).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서울: 태학사.
- 서동인 (1992).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3). 101-119.
- 왕한석 (1988). 한국 친족용어의 내적 구조. *한국문화인류학*, 20, 283-308.
- 윤세은 (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서울시 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규 (1971). 한국의 친척명칭. *연구논총(서울대 사대)*, 1, 221-256.
- 이석규·김선희 (1992). 남성어·여성어에 관한 연구, *목원대 어문학연구*, 2, 12-30.
- 이순형 (1984). 한국 아동의 친척명 인지. *한국 아동학회지*, 5, 29-43.
- 이순형 (1986). 한국 아동의 친척명 인지의 발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녕 (1968). 중세 국어의 가족호칭에 대하여. *동양문화(영남대학교 부설 동양문화연구소)*, 7, 229-246.
- 이윤표 (1986). *국어 친척용어의 연구*. 국어학신연구. 서울: 탑출판사.
- 장동환 (1964).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성대논문집*. 9집, 191-205.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한국가정교육모형 개발*.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최명옥 (1982a). 친족명칭과 경어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 1-26.
- 최명옥 (1982b). 친족명칭의 의미분석과 변이, 그리고 변화에 대하여. *조규설 교수 회갑기념 국어학 논총*. 서울: 형설출판사.
- 최재석 (1982). *개정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Chamber, J. C., & Tavuchis, N. (1974). Kids and kin: children's understand of american kin terms. *Journal of Child Language*, 3, 63-80.
-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354-369.
- Danger, K. (1957). The child's understanding of kinship terms: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relational concep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1, 213-232.
- Edwards, C. P. (1984). The age group labels & categories of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440-452.
- Haviland, S. E., & Crark, E. V. (1973). This man's father is my father's son: A study of the acquisition of english kin terms. *Journal of Child Language*, 1, 23-47.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II.: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iaget, J. (1928). *Judgment and reasoning in the chi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차 원고접수 : 2005. 6. 29.

수정원고접수 : 2005. 9. 10.

최종게재결정 : 2005. 9. 17.

A Study on the Imaginary Meanings of Family Terms of Designation by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Myung-Seon Choi

Dep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Young-Hee Kim

Dept. of Child Study
Daejin University

Jee-Hang Lee

Dep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aginary meanings of family terms of designation by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597 selected students from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Kyonggi Do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information was analysed by frequencies, percentiles and t-test. The results show that female students understood more about terms such as 'mother', 'older brother', 'older sister', 'elder brother', 'elder sister' than male students. The students in Seoul thought about family terms of designation as more positive and intimate than the students in Kyonggi Do. Also the results show grade differences in students' imaginary meanings of family terms of designation.

Key words : family terms of designation, imaginary meaning,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